

# 산악의 땅 네팔 탐방기

이도원 (환경대학원 교수)

네팔 방문은 심장전문가와의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그를 작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마도 2009년 가을이었을 것이다. 내가 뒤늦게 합류한 교수산악회에서 벌써부터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그와 더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첫 만남의 계기로 일 년에 두세 차례 가량 자신의 공부나 활동을 서로 소개하는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 몽골과 네팔의 가련한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사실도 알았고, 나는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그저 약간의 물질적인 보탬이 될 정도의 길을 타진해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지난해 연말 모임에서 네팔 활동에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참석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며칠이 지나 이메일로 참석 의사를 알렸으나 답이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 나는 다른 일정을 챙겼다. 시간이 꽤 지나고 새해 첫날 오후 그는 환영한다는 뜻의 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번엔 내가 잠시 망설이는 시간을 가졌다. 여드레가 꼭 차는 일정의 마지막 이틀이 내 근무처에서 계획한 행사 날짜와 겹쳤기 때문이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정의 기회를 가지겠다고 답을 보냈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 마음을 준비하기까진 언제나 설레는 기대와 함께 약간의 긴장을 동반하니 그렇게 시간을 벌었다. 그러

는 중에 아주 오랜만에 꽤 심한 고통을 동반한 독감으로 며칠을 드러눕는 일이 생기면서 마음이 약해졌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특별한 사업에 도움보다 더 큰 짐이 된다면 어찌나?’ 다행히 한 주일 가량 지나면서 몸과 함께 마음이 자신감을 회복했다. 떠남과 아님을 앞에 두고 하는 저울질이 대개는 그렇듯이 나는 결국 전자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일말의 긴장은 네팔까지 계속되었다. 무슨 까닭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들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내겐 오질 않았다. 기다리던 그 자료를 공항에서 나누어주었다는 사실도 네팔에 며칠 머문 다음 우연히 알았다. 나중에 의사들의 출장을 허락해야 할 주체가 시큰둥하여 떠나기 직전까지 봉사활동의 실행이 불투명했다는 이야길 들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은 그쪽 형편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이나 그런 사연을 모른 채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평소의 삶과 거리가 먼 일을 준비하는 내게는 약간의 부담을 안겼다. 그러나 네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모든 동행자들이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면서 안도했던 것 같다.

첫날은 어두운 새벽 집을 나서 카트만두(Kathmandu)로 가는 여정이었다. 카트만두에서 한 시간 거리인 돌리켈(Dhulikhel)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8시간을 달려 목적지 킴티(Khimti)에 당도했다. 지역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3일 한나절 기간에는 내게 환자들의 접수를 돕는 일이 맡겨졌다. 이 조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이 없을 수도 있는 생각으로 어찌면 주변 산과 강을 돌아다니며 호젓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마음에 종지부를 찍었다. 임무는 구체적으로 가끔씩 어린 환자들의 키와 몸무게를 재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로 질병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환자를 담당의사가 기다리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처방전 양식을 전달하는 정도였다. 하루에 250-500명(3일 한나절 동안 합계 1,260명 가량 진료) 정도의 환자를 그렇게 돕는 일은 단조롭기는 하지만 그만큼 잡념이 없는 시간이었다.

이런 일정으로 소개하는 탐방기에는 전공의들의 활동이 핵심이었던 봉사활동 시간 틈틈이 만난 광경과 카트만두에서 돌리켈을 거쳐 킴티까지 오고 가는 길, 그리고 킴티의 아침산보 길에 보고 느낀 내용을 담았다. 버스로 이동했던 시간에는 주로 높은 산을 오려르 내리며 멀리 보이는 산촌 풍경을 다루고, 킴티에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평탄한 지대가 있고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농촌 마을을 이루는 길과 농경지에 대한 개인적 시각을 담고 있는 셈이다.



<그림 1> 탐방 경로 지도.

## 풍경과 농경, 생물

대학산악회 활동을 한 내게 네팔은 대부분의 산악인들에게 그러하듯 언젠가는 가봐야 할 동경의 땅이긴 했다. 그러나 전문산악인이 아닌 내게 단지 산행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간 출장은 더 이상 쉽지 않은 일이다. 1981년 처음으로 남미 아콩카구아 산행에 참여하는 경험으로 나는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그 속에서 내가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은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교수생활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학이 하나의 돌파구로 판단하고 늦은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마음은 늘 바빴다. 3년 가까운 군대생활과 2년간의 무역회사 생활로 뒤쳐진 공부가 아쉬워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엔 시간이 결정적인 고려사항이 되었다. 그런 과정에 준비와 실행으로 공부를 벗어나는 긴 시간의 산행은 피하는 심리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찌면 준비 부족으로 선배를 잃고 온 아콩카구아 산행으로 나는 고산 등정의 위험성과 괴로움을 피하고 싶었던 것인 지도 모른다.

가고 싶은 네팔을 가지만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의료팀들 속에서 나름대로 보람을 찾기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했다. 그래서 나는 짧은 방문기간이지만 네팔의 전통생태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랐다. 10년 넘게 한국의 전통생태지식 공부를 나름대로 했으니 나와 공감할 수 있는 네팔의 전문가 한 사람 정도 만나다면 내 탐방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떠나기까지 일행과 소통할 기회가 없었으니 기대할 바가 아니다. 이제 기대하는 것은 만나는 풍경 안에 간직되어 있는 생태적 이치를 내 스스로 읽어내는 공부뿐이다.

네팔의 첫날 카트만두 공항에서 돌리켈로 이동하는 동안 한사코 유역의 중앙의 약간 볼록한 땅,

소위 말하는 명당에 마을 터를 잡았던 우리와 다른 네팔 풍경이 쉽게 눈에 들어왔다. 이들은 저지대가 아니라 능선 위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돌리켈에서 킴티를 이동하는 동안 가끔씩 강을 따라 도로가 있긴 하지만 길은 경사지의 마을을 이어주는 선이었다. 산마을은 대개 그 차도의 위와 아래 가까이 또는 훨씬 더 높은 곳에 걸려 있다. 가파른 산지에 띄엄띄엄 집을 짓고 상대적으로 완만한 비탈에 밭을 일군 풍경을 그려놓고 있다. 가파른 지형에 가족 단위로 땅을 나누어 집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 서로 왕래가 쉽지 않겠다. 그런 여건에서는 어쩌면 농사도 대부분 가족 단위로 지을지 모르겠다는 짐작이 든다. 공유하는 공간이 적으면 그만큼 만남과 소통의 시간이 잦지 않아 우리처럼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 터인데 이들 사회는 과연 어떻게?

네팔 일정 내내 나의 동숙자가 되었던 윤선생님(제약회사 근무)도 그 부분을 잠시 말했다. 다만 그런 현상에 대한 우려의 마음은 나와 좀 달랐다. “조금만 경사가 작으면 그렇게 비탈의 숲을 베어내고 밭을 만들었니 자연을 손상할 것이라 안타깝다.” 그렇게 지적했다. 아마도 그런 견해는 네팔의 전문가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모양이다. 돌아오는 공항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서둘러 서점에 잠시 들러 우연히 구한 책의 저자는 인구증가와 농경지 확장이 네팔의 생태적 위기를 야기한다고 보는 기존의 주장을 지적하고 있다(Gurung 2007). 희한하게도 그러한 농경지 부근에서 긴 산사태 자국을 발견하지 못한 나는 경사지를 다루는 저들만의 지혜가 있으리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어보았다. 그렇다면 동질적인 숲 공간으로 파고든 이질적인 마을과 경작지 조각(patch)이 새로운 생물들의 서식 공간이 되어 지역 전체의 생물다양성을 높일 여지를 가진다. 이것은 나만의 가설이 아니라 경관생태학자들이 근래에 쉽게 지지하는 견해다.



<그림 2> 비탈의 산촌 풍경. 각각 2월 15일 짜리곤(Charikot) 이르기 전과 20일 둔켈거에서 찍음.

카트만두 북서쪽으로 인접한 지역 카카니(Kakani)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구룡 박사의 책은 지역민의 지식을 토지 관리에 포함함으로써 생태적 위기에 맞설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주장이다. 그 땅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곳의 생태적 이치를 잘 알고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일구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에 의하면 1960년대 이후 산사태와 토양 침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산사태의 피해기간은 길지 않지만 경사지 계단식 농사로 초래된 침식은 토지생산성을 저해하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본다고 하니 맞은 편 능선에서 차로 이동하며 멀리 조망한 내게 토양침식 현상은 숨은 그림으로 그 풍경 안에 있는 모양이다. 다가가서 살펴보기는 내게 남겨진 숙제인 셈이다.

네팔의 첫날 이동하는 동안 차창을 내다보니 특이한 모양의 밭이랑이 금방 눈에 들어왔다. 지금까지 다녀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모양의 이랑을 보지 못했다. 짐작하건대 길고 넓은 두둑을 만든 다음 그 두둑의 옆을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일부 파내는 방식으로 만들었을 듯하다. 결과적으로 한 두둑과 한 고랑이 맞물려 있는 모양이 반복되는데 왜 이곳만의 특이한 모양이 나왔을까?

언뜻 네팔 방식 이랑에서는 고랑에 물이 잘 가두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단순히 긴 두둑과 고랑이 반복되는 우리나라 방식보다는 고랑에 고인 물이 두둑의 토양으로 골고루 스며들 듯하다. 그렇다면 밭농사 치고는 넉넉한 물이 필요한 작물을 재배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뭘까? 여기까지 상상을 하고는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다. 현지 굴뚝을 보러가던 날 돌리켈을 떠나 우리의 쥘(jeep)은 금방 시골길로 들어섰다. 넓은 들에 온통 펼쳐져 있는 이색적인 이랑들을 다시 만났다. 갓 만들어졌는지 거의 모든 땅에 아직 작물은 보이지 않는다. 안내를 맡은 이에게 어떤 작물을 심는지 물어보니 이곳은 감자재배에 좋은 땅이란단다. 감자를 많이 심는 강원도에서도 이런 모양의 이랑을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가끔씩 꽃이 핀 유채나 이삭이 핀 밀로 채워져 있는 밭들이 보이긴 했지만 한 시간 넘게 걸려 당도하는 산동네 목적지까지 평지에도 비탈에도 감자밭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목적지 둔컬거에서 새로 만든 굴뚝을 보며 집들을 옮겨 다니는 쥘 안에서 딱 한번 그런 이랑 안으로 물을 대는 광경을 보게 된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좋은 사진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상상에 의지했던 첫날의 짐작이 어느 정도 맞겠단 생각을 한다. 예상했던 대로 그물망 같은 고랑을 넉넉히 채운 물이 스며드는 두둑의 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학교 가까이 있는 감자밭. 오른쪽 사진은 물을 대는 모습. 둔컬거에서 2월 20일 찍음.

김티의 이른 아침 짧은 산보는 내게 잠깐 마음의 여유를 안겨주는 기회였다. 그런 때 나는 보통 생물 서식공간으로의 풍경과 그 뒷면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과정을 짐작해보곤 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 만든 공간이 다른 생물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질문해본다. 사람이 숲을 베어내고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 수많은 생물을 몰아내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어떤 문턱을 넘어설 때까지는 사람의 활동이 반드시 생물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과도한 인간의 땅 점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이 오히려 생물의 삶을 마련해준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다. 경사지를 농경지로 바꾸면서 원래 있던 생물들 일부를 몰아내지만 돌이나 흙으로 독을 쌓고, 때로는 물을 가두는 과정으로 만든 새로운 여건이 새로운 생물들을 불러오는 계기가 된다.





<그림 4> 논둑과 웅덩이. 작은 웅덩이는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있다. 19일 06:08 찍음.

한편 농경과 수확 역시 생물들의 환경에 변화를 초래하는 사람들의 행위다. 땅에 있던 영양소가 세월과 함께 줄어들면 그만큼 토질이 나빠지고 사람들은 새롭게 보충하는 방식으로 비옥도를 높이려고 한다. 화학비료가 귀한 사회에서는 흔히 두엄을 첨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두엄을 낸 논은 이제 봄이 다가왔으니 곧 농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림 5> 두엄. 김티 아침 산보 길에서 2월 18일 찍음.

토질을 높이는 다른 방식은 흔히 쉽게 유실되는 질소를 보충하는 것이다. 콩과식물을 심어서 지력을 높이는 방식 역시 전통사회에서 흔히 있었다. 이러한 네팔식의 전통농법을 나는 이번 답사에서 만나길 기대했다. 다양한 전통농법을 확인하길 기대할 상황은 아닌 나는 아침 산보 길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접근을 만났다. 밀밭과 옥수수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콩과식물을 만난 것이다. 우

리나라에서도 밭에 콩을 돌려짓거나, 모내기 전에 논에 자운영을 기르고 논둑에 콩을 심곤 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보질 못했으니 새로운 발견만큼이나 반가웠다. 콩과식물이 뿌리혹박테리아와 공생하며 지력을 높이는 원리를 이용하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나 심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



<그림 6> 혼작: (가) 콩과식물과 옥수수, (나) 콩과식물과 밀. 김티 산보 길에서 2월 18일 찍음.

이러한 전통적인 농법은 아마도 화학비료 공급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에서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조류(algae)가 번성하는 우리의 많은 농경지 수로와 달리 어쩌면 쿨리켈을 지나 김티까지 이동하며 만났던 모든 강물에서 내가 부영화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청정한 빛을 띠고 있는 것은 이러한 농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곳은 빗물이 석회암 지대를 거쳐 오면서 녹여온 석회질 함량이 높아 요로결석 등의 질환을 야기하는 만큼 우리와 다른 접근의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긴 할 것이다.

## 굴뚝과 땀감, 도시의 매연, 그리고 건강

의료봉사의 현장인 킴티에서 첫 밤을 보낸 이른 아침, 나는 준비해간 생강차를 한 잔 마시고 싶었다. 2층 숙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보니 바로 앞 골목길 건너편 식당에 불이 켜져 있다. 주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보온병을 들고 곧장 쳐들어가기로 했다. 식당에는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 노인만이 보인다. 아직은 한 마디 नेपाल 말을 익히지 않았으니 손짓만이 유일한 소통의 길인데 몇 번 시도를 해보았으나 뜻은 전달되지 않는다. 손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 온몸이 대안이다. 주인의 허락도 구할 방법도 몰라 부엌으로 통하는 길로 짐작되는 쪽문을 지나 물과 솔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으로 앞장섰다.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엌엔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있다. 그 안에서 자기 일에 열중한 젊은이와 사내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시꺼먼 천장엔 검댕이 쌓여 형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어둠일 뿐이다. 손짓과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로 젊은이를 설득하는 데는 제법 노력이 필요했지만 어찌되었던 나는 뜻한 바를 이루었다.



<그림 7> 연기 속의 부엌. 16일 06:18

이 짧은 경험은 나중에 내가 언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함께 의료봉사 활동의 주체가 नेपाल에서 시작한 다른 사업을 짧게나마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산업재해를 전공한 우리의 봉사단 접수팀장의 특별한 관심이 보태지고, 우리는 귀국 전날 굴뚝개량사업장을 방문하는 임무를 자의반 타의반 맡았다. 내가 이 봉사단에서 존재감을 가지자면 어쩔 수 없이 의료와 다른 무엇을 찾아야 하고, 그러자면 현장으로 가보는 것이 최선의 길이니 실상은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 시절 겨울이면 소죽을 끓이는 주역이었던 나는 어느 정도 질이 좋지 않은 땀감과 바람 부는 날 굴뚝으로 빠지지 못하고 아궁이로 역류하는 연기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고, 또 건강과 관련된 नेपाल의 부엌 사정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살펴보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다.

내가 이 봉사단에 발을 담그는 데 첫 다리가 되었던 심장전문가는 사실 환경을 전공한다는 이유로 나를 매연 문제와 알게 모르게 연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심장 수술을 하며 매연의 심각성을 본 그는 नेपाल 사람들의 건강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필연적인 사실을 스스로 깨우쳤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가끔씩 만나는 내가 환경대학원에 몸을 담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할만한 상대로 주목했는지도 모른다. 돌리켈에서 다시 만난 그는 12살 자리를 수술하며 보게 된 허파가 노인 수준의 건강을 지니고 있었다며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나는 대기와 실내 공기 문제를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으로 의사들이 중심인 일행 안에서 단지 상대적으로 굴뚝 문제와 가까운 사람일 뿐이다. 다행히 유체역학을 소개받아 굴뚝의 공기 흐름을 공부한 사람이 동행하는 길이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인연으로 의사들이 진료결과를 함께 나누

는 세미나가 있던 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약사 한 분과 함께 세 사람의 굴뚝사업 특별 감찰단이 즉흥적으로 구성되었다. 순발력 있는 모니카(코이카와 인연으로 네팔에 4년 거주하고 봉사단의 통역과 여러 관리에 관련된 일을 담당)는 어느 새 사업을 책임 맡고 있는 현지인이 이틀 뒤 우리를 현장으로 안내하도록 교통편과 함께 주선해놓았다.

임무를 받은 직후 우리는 당장 식당 부엌으로 이어진 굴뚝부터 살펴보았다. 굴뚝은 이틀 전 내가 뜨거운 물을 얻기 위해 갔던 그 부엌 위의 함석지붕 위로 짧게 돌출되어 있다. 마침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아침 시간이라 굴뚝으로부터 연기가 나오고 있으니 관찰하기 좋은 여건이다. 굴뚝 위를 가리고 있는 뚜껑은 한 쪽으로 밀려 있다. 당장 그것부터 산업안전 전문가는 지적한다. 부엌의 공기를 빠르게 뽑아 올리려면 굴뚝이 길어야 하고, 뚜껑이 덮여 있어야 그 사이로 바람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연기가 잘 빠진다는 설명이다. 물상 시간에 베르누이 법칙을 배운 정도의 실력으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이 문제는 나중에 건강을 위해 연기를 줄이는 접근과 열기를 잘 보존하여 뿔감을 절약해야 하는 사정과 맞물려 어느 정도 절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이 열악한 사회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할 매우 주요한 사정이라는 것에 우리는 동감하게 된다.



<그림 8> 식당 위의 굴뚝. 김티에서 18일 오전 7시.

목요일 오전 예정대로 우리는 굴뚝개량사업의 혜택을 입은 마을로 가보기로 했다. 우리를 실은 짙은 돌리켈을 떠나 잠시 교외의 울퉁불퉁한 흙먼지 길을 들어서더니만 어느새 비교적 넓은 평지를 지난다. 차는 멀지 않아 돌들이 심하게 들어난 비탈길을 오른다. 길 양쪽으로는 벌써 익숙해진 풍경이다. 길가를 늘어선 누옥들을 스쳐 지나고 나니 어느새 비탈에 띄엄띄엄 자리 잡은 집과 이웃한 밭들, 베어 먹다 남긴 숲이 이룬 공간이다. 조금 떨어져 보는 탓도 있겠지만 산기슭 길가에 늘어선 있던 집들보다는 어쩐지 평안하고 넉넉해 보인다.



<그림 9> 산촌 풍경. 같은 곳에서 뒤돌아본 만년설이 있는 고산 풍경.

잠시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 섰던 곳을 지나자 금방 언덕을 넘어 목적지에 이른다. 우리의 마을 회관에 가까운 기능을 지닌 곳인 듯한데 작은 진료소도 딸려 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둔컬거라는 작은 산촌이지만 유역의 낮은 곳에 자리를 잡아 이곳 산촌의 중심지역인 줄 알겠다. 그 건물은 공동체발전센터라고 한다. 유니폼을 갖춰 입은 5명의 여학생들이 센터 앞에서 서성이기에 말을 걸어 보니 수줍어할 뿐을 도통 말을 하려 들지 않는다. 우리의 안내는 그들이 간호학교를 나와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실습을 수행하기 온 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곧 굴뚝개량사업의 현장으로 안내를 받았다. 안내를 하는 통역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부터 굴뚝개량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20개 정도 신설했고, 방문한 4곳 중에



서 한 집은 이틀 전에 불을 떼기 시작했다. 굴뚝 끝이 천장과 너무 가까운 모습은 의아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막대기를 넣어 쌓이는 검뎅을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대도 그들은 한 달에 두 번 가량 굴뚝 청소를 한다고 말한다. 시연을 시켜보니 굴뚝 안으로 넣는 막대를 스스로 꺾었고, 그것은 대략 굴뚝 길이의 반 정도로 되었다. 사실 앞서 들렸던 집에서는 천장이 더 낮았던 것으로 봐서 그들은 개량 전의 사실을 미루어 대답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10> 아궁이 불 넣기를 보여주는 할머니와 20세 손녀와 천장에 쌓인 검뎅. 짧은 시연 동안에 금방 부엌엔 연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림 11> 굴뚝 청소 시연.

비전공자인 내가 봐도 아궁이는 오히려 연기가 부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이를테면 굴뚝과 연결된 솔 걸이 아래는 낮은 칸막이가 있는데 이것은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려 일부러 흠을 쌓아 만든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연기가 빨리 빠지는 쪽과 반대로 연기가 잘 빠지지 않지만 연료를 덜 소비하는 쪽 어느 것이 좋은지 물어봤다. 대답은 후자였고, 얼굴에는 그런 당연한 질문을 왜 하느냐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다. 까닭을 물어보니 이틀에 한 번씩 땀감을 구해야 하고, 한 번 가는 길은 왕복 6시간이 소요된다고 것이다. 지역이나 가족마다 다를 터이라 매우 단편적이긴 하지만 열악한 땀감 사정과 굴뚝, 매연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어찌면 시간이 갈수록 가까운 곳의 숲이 황폐화되면 사람들은 땀감을 구하기 위해 점점 더 먼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림 12> 땀감을 머리로 지고 가는 사람들. 땀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지역단위 전시장에 들렀다. 굴뚝 사업을 맡아서 하는 시민단체(Resource Management and Rural Empowerment Center)도 전시장의 한 칸을 맡아 자기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영어 포스터를 가만히 보니 굴뚝 사업은 지역민을 모아 교육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방문한 굴뚝 4곳이 모두 규격과 모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까닭이 짐작된다. 교육을 받은 주민이 돌아가 각자 자기 집이나 이웃의 굴뚝을 만들도록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래도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솜씨가 좋은 사람을 뽑아 지역의 굴뚝 설치를 관장하도록 조정하는 대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대안은 이미 사업의 주최도 고려했다고 한다. 내 글을 먼저 검토한 모니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4곳에서 집마다 다른 점을 확인하였으니 실행과정에 일어나는 변이요인을 잘 따져봐야겠다.

“지난번 솔럼부의 예를 들면 처음엔 굴뚝의 필요성을 몇 차례의 지역주민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지역주민 중 10명의 프로모터를 선정하여 굴뚝 만드는 법과 관리법을 설명해준 다음 그들에게 지역별로 할당을 주어 굴뚝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2인1조를 이루어 굴뚝 하나를 설치할 때마다 300루피(약 4천 원 정도)의 설치비를 받도록 했고 이 설치비는 설치가구에서 100루피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한 후원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프로모터 중에는 연세가 지긋한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었는데 주로 여성 프로모터들이 훨씬 활발히 활동하였고 남성 프로모터들은 그보다는 덜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솔럼부 지역에서 총 685가구 전부 설치를 했으니 한명의 프로모터마다 많게는 100가구 이상 적게는 약 5-60가구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

다.”

가정집에서 나오는 연기는 결국 사람 사는 공간을 흘러나오고 에워싸는 더 큰 공간의 문제로 등장한다. 다행히 사람과 차가 적은 시골은 가정집에서 내뿜은 매연을 희석하고 자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대도시 카트만두의 형편은 달랐다. 첫날 공항에서 돌리켈로 이동하는 동안 매캐한 공기를 우리는 벌써 경험했다. 수많은 자동차의 연료 질이 좋지 않은지 차가 문제인지 시꺼먼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건물이 필요한 터이고, 돌리켈로 넘어가기 직전의 땅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벽돌을 굽는 듯한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뿜어 나오고 있었다. 마지막 날 아침 카트만두 하늘을 누르고 있는 공기는 높은 하늘과 다른 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공기를 들여 마시는 사람들의 건강은 어떨까?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현지인들은 익숙해진 환경 속에서 태연한 모습이었다.



<그림 13> 카트만두 변두리 유채 밭 뒤로 공장 굴뚝의 연기가 나오는 풍경.

## 진료소 주변

사흘 한나절 멀리서 찾아온 환자들의 접수를 도우며 나는 그들의 힘겹고 애처로운 외모를 충분히 보았다. 옷도 몸도 자주 씻을 형편이 아닌 삶을 그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입고 있는 옷들은 얼마나

오래 동안 빨지 못했는지 누추했다. 귀에 체온 측정기를 넣어보면 귀지가 묻어나와 준비해간 소독 솜을 아껴 써야 했다. 아마도 높은 능선으로 샅터를 정하면서 가정용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일 터이다. 맨발인 사람들도 꽤 많았다. 먼 산길을 3시간 이상 걸어온 사람도 있단다.



<그림 14> 진료소에 바깥에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라파엘크리닉 2012년 자료)와 접수처

진료 이튿날 점심 때 오후 일과를 기다리는 동안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킴티의 소년소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생겼다. 거의 대부분 12살이고 무리 중에는 동생도 있었다. 누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나고 물으니 과학 선생님이란다. 나는 문득 그의 어떤 면모가 학생들에게 매력이 되는지 궁금했다. 농담 삼아 “과학 선생님을 한번 만나게 해줄래?” 했더니 선뜻 주선을 하겠다고 나선다. 그래서 다음날 대략 4시면 내가 한가할 터이니 오라고 했다.

다음날 3시 30분도 되기 전에 그들은 철조망 너머로 몰려왔다. 접수 일은 예상대로 4시에 끝났다. 곧장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더니 찾길을 사이에 두고 그들이 다니는 학교(Khimti Project School) 정문 바로 앞에 있는 헬기 착륙장에서 멈춰 섰다.

사진을 찍자 사회관계 담당 교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교사는 교무실로 나를 인도하여 잠시 선생님들과 소개하고는 도서실로 안내했다.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사람들의 명단



<그림 15> 학교 정문 앞에 선 학생들. 웃도록 “킴티-” 하도록 했는데 모두들 구김살 없이 밝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왼쪽 끝 학생이 특히 불임성이 있고 영어를 잘 구사했다.

이지만 선뜻 나서기 어려웠다. 아직은 약속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그는 내게 교사들이 진료소에 가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약속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책임자와 의논하고 전화를 해주기로 했다.

그날 저녁 모니카와 교사들이 찾아오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더니 그런 일은 흔하다고 했다. 이곳은 병원시설은 역악한 편이고 카트만두까지 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 사회관계 담당교사가 이 기회에 모든 교사들의 건강을 확인하는 섭외를 하는 셈이다. 우리의 진료를 돕는 군인과 경찰, 자원 봉사들 또한 자신들과 인척의 진료를 요청할 것은 분명하고,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이 제한된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만날 수 있을지 확인도 해야 한다. 모니카의 조정으로 결국 학생들을 통해 만나게 된 교사들은 일과가 끝난 시간에 진료를 이루어졌다.

## 마치며

일정을 마무리하며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 약간의 주기가 오른 이번 행사의 주역은 내게 다가와 술을 권했다. 그는 네팔의 보건 문제는 환경 개선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환경을 전

공하는 내가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역시 학생 때부터 산악회 활동을 한 그는 특별한 산들이 있는 세계의 보물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좋아 산을 다니고 산을 연구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의 은근한 분위기로 마을과 도시에 조금씩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나지만 결국 산은 내 삶의 원천이다. 결국 내 नेपाल 행은 산으로 인연이 닿은 땅이다.

환경과 도시,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전통지식과 연결하며 자긍심을 키우고자 하는 나는 아무래도 주어진 주문에 자유스러울 수 없겠다. 그렇지 않아도 नेपाल의 열악한 산골과 카트만두의 환경을 보며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가 무언가 개선에 기여할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수많은 차들이 날는 도시의 무질서와 여기저기 마구 패인 길, 먼지투성이인 도시의 하늘과 땅, 낮에는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모습이지만 밤이면 사람들을 위협하고 패싸움을 벌린다는 카트만두의 개들을 바로 잡을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질환이 있어도 병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겨울에도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찾아줄 주체 또한 사람뿐이다.

귀국 나흘 뒤 연구소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며 나는 보고 온 नेपाल의 실상을 모티브로 삼았다. 짧은 소개를 들은 동료교수들이 걱정기술 지원으로 돕는 길을 찾자는 의견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며 나름대로 희망을 가진다. 구체적인 일조량과 강수량 자료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태양열 이용으로 땀감 소비를 줄이고, 빗물 이용으로 수자원 확보의 길을 찾아보자는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다. नेपाल을 위한 이 아이디어의 실현은 내가 풀어야 할 몫이다.

## 〈참고문헌〉

Gurung, S.M. 2007. *Beyond the Myth of Eco-Crisis: Local Responses to Pressure on Land in Nepal*. Mandala Publications, Kathmandu.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jc77&logNo=150177508706>

## 〈네팔 개요〉

- 위치 : 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중앙 내륙국
- 국명 : 네팔공화국(Republic of Nepal)
- 수도 : 카트만두 / 해발 1,350m
- 기후 : 몬순성 기후, 아열대성 기후
- 면적 : 147,181km<sup>2</sup> (한반도의 2/3)
- 인구 : 3,043 만 명(2013년)
- 민족 : 티베트.몽골족(62%), 아리안족(35%), 기타(3%) 등 약 60여개 종족
- 언어 : 네팔어(공용어)와 약 70여개의 소수 부족어(지식층은 영어구사)
- 종교 : 힌두교(80%), 불교(10%), 무슬림(4.2%) 기타
- 1인당 GDP : 1,500 달러
- 화폐 : Rupee (루피) / 1달러 당 약 99Rs
- 문자 해독률 : 48.6% / 10+2 교육제도
- 기반시설 : 전력문제(1일 16시간 정전), 물 부족(제한급수)
- 치안 : 양호한 편 / 시위 때는 이동 제한

\* CIA World Factbok(2013)/World Bank(2007)  
/네팔 통계청(2009)  
(라파엘클리닉 제공 자료 재인용)